

광주 공직자, 격무·기피 업무는 ‘교통지도’

단속 인력 부족·민원인 마찰 애로사항

구별 특성 반영 격무·기피 업무도 눈길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공직자들은 교통지도 업무를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지도 업무는 자치구 별 기피 업무 선정 과정에서 매차례 높은 순위에 해당, 관련 직책 공직자들은 고질적인 불법주차장 단속 인력 부족과 민원인과의 대면 마찰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20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6~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청 내 격무·기피부서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운용 중이거나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광산구가 선정 절차를 마치고 서구가 오는 25일부터 5일 동안 직원 설문조사를 받아 최종 선정한다. 다른 자치구는 지난해 또는 과거 선정 절차를 마치고 운용 중이다. 선정 주기는 6개월에서 4년까지 다양하다.

공직자들이 선정한 격무·기피부서 또는 업무 중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은 교통지도 관련 부서·업무로 파악됐다.

인력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장 단속 어려움, 관련 과태료 직접 부과 부서인 점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유선·대면 마찰 고충이 선정 배경으로 꼽

힌다.

격무·기피부서 순위를 매기는 서·남구의 경우 최근까지 교통지도 관련 부서가 최상단에 위치했다.

순위를 나누지 않는 대신 모든 부서별 격무·기피 업무를 집계하는 동·북·광산구의 경우에도 교통지도 과태료 부과·민원인 응대 등 업무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격무·기피부서 또는 업무 선정 과정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자치구별 특색이 반영된 결과도 나왔다.

동구 직원들은 여점 사업인 종장르네상스 사업을 격무·기피 업무 중 하나로 선정했다. 상권 활성화 과정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인들의 민원들이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구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기후환경과를 격무·기피

1순위로 선정하고 관리했다. 붕괴 참사로 사상자 6명이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서 빗발친 비산먼지 등 민원 탓으로 풀이된다.

말바우시장 내 생존권을 호소하는 노점상인들의 집단행동이 조직화된 북구는 건설과 내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업무가 기피 업무로 선정됐다.

광산구도 기피업무 선정 과정에서 북구와 비슷한 내용이 반영됐다. 광산구가 올해 초 진행한 격무·기피업무 선정 결과 건설과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가 43.5%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치구들은 격무·기피 부서 또는 업무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새 정부 탄생 한복판서 5·18기념행사”

강기정 시장, 비상계엄후 어느 때보다 5·18 관심 고조

강기정 시장이 지난 18일 비상계엄 이후 어느 때보다 5·18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45주년 행사를 위해 행정부지사 중심의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계엄과 탄핵의 시간을 거치며 어느 때보다 광주와 민주주의, 5·18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애정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탄핵정국 중 전일빌딩을 비롯한 주요 사적지 방문객 수가 전년 동일 대비 2만명 가까이 늘었다”며 “올해 45주년 기념행사와 세

계인 권도시포럼이 열리는 5월은 그야말로 다시 만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시장은 “새로운 대통령을 5·18기념식에서 맞이하지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한복판에 5·18 45주년을 맞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시장은 “전 공직자가 함께 준비해 국민을 맞이해야 한다.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5·18행사 총괄지원팀을 구성하고 여기에는 5개 구청도 함께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전남, 10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6500명의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치료 등 10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결과,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은 매년 20~30%에 달하며, 출산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하는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2일 난임시술 의료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현장경험을 공유하며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시술과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구체적 급여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지속해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난임부부가 경제적 이유로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만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55주년 지구의 날 행사

지난 19일 오후 시청 앞 도로에서 열린 '제55주년 지구의 날 행사'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대자보시민주민실천단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관광지 자전거 투어 5월 개시... “관광·경제 활성화”

문체부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 고흥·해남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사업 공모에 전남 고흥군과 해남군이 나란히 선정됐다.

이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아웃도어와 레저활동 수요를 반영, 자전거길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고흥은 ‘블루마린&스타로드 자전거 투어’를 통해 2개의 테마형 코스를 구성했다. 해양 경관이 아름다운 소록도와 거금대교를 따라가는 블루마린 코스와 우주발사 전망대와 팔영대교 등을 잇는 스타로드 코스다. 자연 절경과 우주항공 테마를 접목한 전국 유일의 자전거여행 콘텐츠로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관광객을 위한 KTX 연계 상품도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여행으로 일상회복, 자전거나들이 해남 미션투어’를 통해 총 11개의 자전거길 중 3개 이상을 완주하고 SNS 여행후기를 작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 관광지, 음식, 숙박 등을 포함한 2박3일 코스를 구성했다.

두 지역 모두 5월 이후 아름다운 남도의 경관을 배경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호 기자

이상기후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

광주, 3000농가 혜택

광주시가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80%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비는 43억원이 투입돼 지역 3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가는 재해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벼 등 76여개 품목이다.

광주시에서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이면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손해 발생 시 보험금은 실제 피해 규모에 따라 평가 후 지급된다.

남력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 중 하나로 농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세계한인대회서 전남관 운영 “관세 벽 넘자”

13개 중기, 식품·바이오·뷰티·헬스케어 등 제품 전시

전남도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이라는 통상리스크 앞에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행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지 엿새 만인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통상위기 속에서 협상과 시장 확대를 위한 ‘골든타임’이 주어졌 셈이다.

도는 이를 실질적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7일(현지시간)부터 열린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KBC)에 13개 유망 중소기업을 파견해 ‘전남관’을 운영했다.

푸드파라(곡성), 해청정(완도), 남

도소반(목포), 현대푸드시스템(장성), 엔피케이(담양) 등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포함됐다.

식품·바이오·뷰티·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기업들은 직접 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화순의 디엑스엘은 80만 달러 규모의 연쇄제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창환 경제부지사는 “통상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교두보 확보에 나섰다”면서 “지역기업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FAX: 062-362-0078

이메일: honamnews@hanmail.net